

“일교차 크고 개화는 빠르고”...나주배 ‘저온피해’ 비상

나주시 “미세살수·빙상팬 가동해 온도 관리 철저” “꽃가루 충분히 확보해 인공수분 횡수 늘려 달라”

국내 최대의 배 주산지인 전남 나주시가 올해도 평년보다 빨라진 배 과수 개화시기를 맞아 ‘저온·서리 피해’ 예방을 위해 과원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개화기 냉해를 입은 배꽃은 인공수분을 통한 수정이 어렵고, 열매가 맺혀도 이후 발육 부진으로 모양이 일정치 않은 기형과(果)로 성장하고, 가을 출하기 등외품 배로 판정받아 한해 농사를 망칠 수 있다.

7일 나주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배꽃 만개 시기는 4월2~3일로 평년 대비 10일, 전년 대비 4일 가량 앞당겨졌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달 중순까지 아침 최저기온이 영상 2도 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급변해온 날씨 상황을 감안하면 아침과 낮 일교차가 크게 15도 이상 벌어져 저온피해 발생이 크게 우려됨에 따라 착과기 이후까지 꼼꼼한 예방 대응이 요구된다.

나주시농업기술센터는 “특히 지난 달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일찍 꽃망울을 터트린 과원이 많아 결실률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인공수분 횡수를 늘려 적정 착과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온 피해 예방의 핵심인 과수 토양

수분 관리와 온도 조절도 당부했다.

센터는 “갑작스런 저온에 대비해 미세살수장치와 열풍·방상팬 등 저온피해 예방시설을 갖춘 과원은 충분히 물을 공급(관수)하고, 온도센서 사전점검 등을 통해 오작동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가는 친환경 연소재 또는 볏짚 등에 불을 피워 과원의 온도를 높이는 것도 효과적이다. 과원 내 스프링클러를 활용해 배꽃이 없는 수관하부 살수를 통해 땅의 온도를 높이는 방법도 유용하다.

개화 직후에는 넉넉히 인공수분용 꽃가루를 확보하고 인공수분 횡수를 늘려 충분한 결실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암술의 수정가능 기간은 개화 당일 부터 약 3일 이내로 아침 이슬이 따른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적다.

작업 후 2시간 내 비가 내릴 경우 다시 인공수분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꽃가루 증량제(석송자·소나무 어린 흙씨 가루) 사용 시에는 배꽃 화분의 발아율에 따라 희석 배율을 조절해야 하고, 화분의 발아와 화분관 신장은 온도 조건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15도 이하 또는 35도 이상은 피하는 것이 좋다.

김홍배 나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4월은 올 한 해 나주배 농사 성패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배꽃 만개기 이상저온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꽃가루량 확보와 인공수분 횡수를 늘려 적정 착과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나주지역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전체 배 재배면적의 52%, 76.2%에서 저온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4월1일부터 4일까지 이상저온에 의해



7일 국내 최대의 배 주산지인 전남 나주의 한 과원. 하얀 배꽃이 흐드러지게 핀 가운데 인공수분(受粉)을 하는 인부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배과수 1729.9ha, 복숭아 27.7ha, 단감 31.8ha, 기타 과수 35.9ha, 특용작물 (담배) 2.5ha 등 총 1825ha가 저온피해를 입었다. 기동취재본부

구례군, 직원 친절교육 실시

전 공직자 대상으로 사례 위주 실무교육



구례군은 지난 6일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1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구례=박진호기자

절에 대한 지적에 전담인력배치, 친절모니터링 등 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체질개선을 꾀하고 있으며, 민원부서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의 고객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 친절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민원응대 서비스슬루션”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고객 만족, 고객 경험 관리, 고객의 소리 관리, 고충민원 응대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사례 위주의 실무교육으로 실시되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화순군,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

16일까지 구매 비용 60%까지 최대 400만 원 지원

화순군은 오는 16일까지 화순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 사업은 관련 인허가를 받아 화순군에

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급식소 등 사업장이 대상이다.

감량기 구매 비용의 60%까지,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사업비 2000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지원 가능한 감량기는 음식물류 폐

기물을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 등에 의한 방법으로 퇴비·사료, 건조, 소멸하는 기기다.

음식물 분쇄 등으로 하수도로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품질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화순군청 환경과(자원순환팀 061-379-3604)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 자격 등 검토 후 보조금이 지급된다.

화순=박순철기자

담양군, 불법묘지 특별단속 추진으로 대규모 묘지 근절

2년 이하 징역·2000만 원 이하 벌금

담양군은 최근 후손의 묘소 관리의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조상의 산재한 묘소를 한 곳에 모으는 가족형, 문중형 묘지가 광범위하게 시행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강력한 단속을 나섰다.

그간 산림기반시설 확충 및 산림휴양기능 증진 목적에 따라 꾸준히 조성된 등산로 및 임도의 개설로 산 중턱

까지 중장비 접근이 용이해져 넓은 묘역을 조성, 무분별한 산림훼손과 축대를 쌓아 집중호우 등 재난발생시 산사태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등 생태도시 경관을 해치고 있어 주민신고 등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담양군은 전 지역에 걸쳐 조성된 불법묘지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묘지 근절을 위한 계도 활동 및 특별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으로 묘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묘지 이전 명령과 묘지이전 불이행시 묘지 이전 시까지 매년 1,000만 원(년 2회, 각 500만 원)의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이상의 확산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곡성군, 12일까지 女농업인 행복바우처 발급

곡성군이 오는 4월 12일까지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이하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행복바우처는 여성농업인에게 연 20만원(자부담 2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는 제도다. 문화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 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7년부터 시행됐다.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업인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복바우처 카드는 사행성 및 유흥업소를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올해 지원금은 연말까지 사용해야하며 내년으로 이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곡성=양혜영기자



곡성군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신청을 받아 올해 지원 대상자 2,788명을 선정했다. 올 3월말 기준 곡성군의 인구가 27,888명이니 전 군민의 10%가 혜택을 받는 셈이다. 신청자들은 4월 12일까지 카드 신청 시 지정된 농업협을 방문해 카드를 발급 받으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카드 신청서를 제출했던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군, 품목별 농업인 교육 실시

장성군이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본격적으로 농업교육을 추진한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월부터 오는 10월까지 과수, 채소, 특작 등 품목별 영농정보 및 재배기술을 알려주는 ‘2021년 품목별 농업인 교육’을 운영한다.

농사 준비작업이 많은 3월까지 양파, 딸기, 복숭아, 블루베리, 만감류 등 농업인들의 수요가 많은 품목들의 재배기술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과수 이상저온 대응 교육을 함께 편성하여 농업인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었다.

기동취재본부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